

곡성군, 공약 추진 점검 군민 약속 이행 속도 높인다

민선 8기 1분기 추진상황 보고회
문제점 공유 향후 대책 집중 논의
소통 창구 바로폰 제도 운영 등
“지속 점검 미흡 사항 수정·보완”

곡성군이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민선8기 1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상래 군수와 정창모 부군수,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하며 향후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민선 8기 곡성군 공약사업은 5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2025년 1분기 기준 3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업은 정상 추

진 중이다.

완료된 공약으로는 지난해 12월 바로폰 제도(010-6663-8582)를 전면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장날 이른바 버스 도우미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 2명을 배치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4월 말부터는 월별 1회씩 육과·석곡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 축산업의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 기계 장비지원 확대를 위해 군비 4100만원을 확대 편성했다.

군은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 공약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곡성군이 군청 소통마루에서 ‘민선 8기 1분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곡성군 제공

장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자 군 행정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이다”며 “모든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추진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공약사항은 곡성군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만원 임대주택 모집 공고 화순군, 21일부터 신청

화순군은 15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2025년 만원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를 21일부터 5월4일까지 2주간 정부24를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만원 임대주택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주거정책이다.

지난 2년간 총 200호 모집에 총 2107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해 2023년 18:1, 2024년 1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끝에 총합 청년 132세대, 신혼부부 6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이번 2025년도 모집 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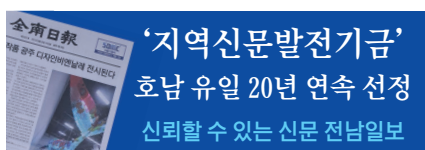
올해는 하반기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고려하여 혼인 증빙서류 제출 시기를 혼인 후 제출로 조정했으며 신혼부부 중 임신 중이거나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입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학업 및 구직활동 중인 일용·초단시간 근로 청년들도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공급할 예정이다.

화순군 만원임대주택은 화순읍 광덕지구 일원에 위치해 마트·병원·관광사·학교 등 생활 및 교통인프라가 발달된 곳으로 입주한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5년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은 지난 1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1일부터 5월4일까지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 → 6월 입주자 추첨 → 하반기 입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곡성군 드림스타트 직원이 지역 아이들에게 난타를 가르치고 있다. 곡성군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주산지역아이센터에서 난타교실을 운영한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드림스타트, 난타교실 운영

곡성군이 오는 12월까지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신체 증진을 위해 매주 목요일 주산지역아이센터에서 난타교실을 진행한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난타수업은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신나고 즐겁게 리듬을 타며, 손끝에서 전해지는 강렬한

박자 속에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창의력과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곡성군은 수업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난타 공연을 지역사회 내 노인시설과 다양한 행사와

축제 등 무대 공연에 오를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한 난타 교육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가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가치있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광주지역농협 3개 사무소,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수상

각 그룹별 1위 달성 쾌거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14일~15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4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광주지역농협 3개 사무소가 각 그룹별 1위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부문에서는 서광주농협(조합장 문병우)과 송정농협(조합장 차주철)이 종합부문 대상을,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이 순일반보험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개인부문 시상에서는 은상 이지영 과장(서광주농협), 동상 정윤희 주임(서광주농협), 우수상 전은주 과장(서광주농협) 등 3명의 직원이 영예를 안았다.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은 농작물 재해보험, 정책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손



‘2024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광주지역 농협 3개 사무소가 각 그룹별 1위로 대상을 수상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해보험 부문에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실익 증진 및 높은 고객 만족도를 높인 농협과 임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현호 본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 농업·농촌을 위해 헌신한 광주지역농협의 노고가 큰 상으로 이어져 자랑스롭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노력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가 지방소멸 가속화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에 나섰다.

15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에 따르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대표적인 연극 공연장인 기본좋은 극장을 운영하는 플레이팩토리(대표 이사 이하나)와 최근 두 번째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기본좋은극장은 공연 기회를 제공하며 영·섬유역본부는 자원 지원과 함께 바이럴 홍보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상호 적극적인 협업을 약속했다.

영·섬유역본부는 침체되어 가는 지역 문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주 상무지구내 위치한 본부 사옥 로비를 사계절 감성형 문화공간 포토존으로 조성했다.

계절별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테마를 담아내어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면서 문화쉼터로써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영·섬유역본부의 설명이다.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은 “지역 대표 소극장과 의 상생협력 체결과 사옥 로비의 감성 문화공간 조성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함평군, 안전 관리 논의 제27회 나비대축제 목전

함평군이 오는 25일 개막하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15일 축제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2회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상익 함평군수가 주재했으며 함평경찰서, 함평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축제관광재단의 축제 세부 계획 보고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세밀히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행사 안전관리 조직 구성 △다중 운집 시 대응 방안 △비상 상황 대처 계획 등 축제 전반에 걸친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함평군은 축제 개막 전 관계 기관과의 합동 현장 점검도 함께 추진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모든 군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벽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